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2012. 11.

연구위원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著 者 註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부문에서 G2로 부상하면서 국제금융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위안화 국제화는 자본시장 개방과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을 그 조건으로 하지만 중국경제의 여건상 상당 기간 이를 허용할 수 없어, 역외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을 자국의 금융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입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큰 데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매년 많은 중국 관광객이 유입되어 위안화 금융허브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위안화 국제화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위상 제고의 획기적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추진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 현황과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의 위안화 역외중심지 구축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에 유익한 논평을 주신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조정위원들과 보고서 편집을 도와주신 김은화 연구원, 한송희 연구조원께 감사드립니다.

안 유 화 yuhuaan@kcmi.re.kr 3771-0836

목 차

Executive Summary	v
Abstract	viii
I. 서론	1
II.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선결요건	3
1. 위안화 국제화 현황	3
2. 선결요건	9
III.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 필요성	15
1.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 필요성	15
2. 구축사례	17
IV. 한국의 역외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전략	27
1.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27
2. 기본방향	30
3. 정책 추진 방안	34
V. 결론 및 시사점	37
참고문헌	39

표 목 차

<표 II-1> 역외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현황	7
<표 II-2> 역외 위안화 예금 규모	7
<표 II-3> 중국의 위안화 통화스왑 체결현황	8
<표 III-1> 주요국들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추진 노력	18
<표 III-2> 홍콩 위안화 관련 업무 발전과정	22
<표 V-1> 한국의 덤섬본드 발행현황	31

그림 목 차

<그림 II-1> 중국 대외교역 중 위안화 결제 및 비중	5
<그림 III-1> 홍콩의 위안화 예금규모와 무역결제 규모	21
<그림 V-1> 위안화 결제 시스템	33

약 어 표

BOC	Bank of China
CCS	Cross Currency Swap
CD	Certificate of Deposit
DF	Deliverable Forward
ELN	Equity-Linked Securities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FTA	Free Trade Agreement
FX	Foreign Exchange
ICBC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IPO	Initial Public Offering
LME	London Metal Exchange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M	Money Market
NDF	Non-deliverable Forward
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QFLP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
RQFII	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SDR	Special Drawing Right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UAE	United Arab Emirates

《 Executive Summary 》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달러화 약세에 따른 외환보유고 평가손실과 관리비용 문제를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국제거래에서 위안화 통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1) 결제통화로서의 국제화 2) 투자통화로서의 국제화 3) 보유통화로서의 국제화 등 3단계에 걸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무역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국제화에 주력하면서 투자통화로서의 기능강화에도 나서고 있음
 -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앞으로 더욱 높아지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은 자본시장 개방과 자유로운 환율 운용이 필요하나 중국경제의 여건상 상당 기간 이를 허용할 수 없어, 역외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이 필요함
 -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을 자국의 금융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임

□ 한국은 중국과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한 데 이어 최근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에 본격 돌입하면서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의 토대를 마련함

—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큰 데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매년 많은 중국 관광객이 유입되어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위안화 국제화를 금융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추진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추진에 따른 위기요인도 있음을 감안하여 긴 호흡을 갖고 치밀하게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과의 Win-Win 협력구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으로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향후 중국의 경제위상 강화와 위안화 비즈니스의 잠재성을 미리 인식하고, 관련 업무를 위한 인력, 인프라 등을 선제적으로 갖추고 준비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 무역결제에서 중국측에 국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청산(clearing) 기능을 수행할 은행을 지정함(중국계 은행 또는 국내은행)

— 자금조달측면에서 위안화 예금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위안화 표시 채권(K-RMB 본드) 발행과 RMB QFII 등의 한국으로의 적용을 확대시켜 위안화 투자시장을 조성해야 함
-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거래를 확대시켜 국내 금융기관들이 위안화 표시 보험,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중국측과 협의함

□ 또한 관련 기획단 구성, 국제컨퍼런스 개최, 금융협력 채널 활용을 통해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내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하고, 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함
- 대외적으로 對中 금융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우리측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함

« **Abstract** »

Chinese Yuan Internalization and Korea's Responses

In the wake of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 is exerting more efforts to increase the use of Chinese yuan in global transactions. These actions are designed to tackle the problems caused from the weak dollar; the loss in foreign reserves, and the rise in costs of managing those reserves. Another reason China is pushing for yuan internationalization is so that it has a bigger say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China has presented a three-phased internationalization plan to make the yuan: 1) an international settlement currency; 2) an international investment currency; and finally, 3) an international reserve currency. At present, it's i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hases, focusing on positioning it as a settlement currency in trades and strengthening the yuan's investment currency function. With China's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rising, yuan internationalization is expected to accelerate.

An internationalized currency will require fully opened capital markets, and a free-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which will not be the case for China, at least for the near future. Instead, China is building an offshore yuan hub. Currently, many financial leaders, e.g., Hong Kong, Singapore, and London, compete with

each other to use it as a driver for financial industry development.

Korea has expanded the size of its currency swap with China and also recently kicked off negotiations for a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and these will lay the groundwork for an offshore yuan hub. In this regard, Korea has the optimal environment: Large trading volume with China, geographical proximity, and a large number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Therefore, Korea should thoroughly review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n offshore yuan hub before it's too late. Yuan internationalization may be a prime driver for developing Korea's financial industry. This, however, may pose some risk factors as well. With this in mind, Korea should establish its long-term strategy, which should provide a win-win structure for China and Korea.

Korea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recognize China's rising status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 bright potential of yuan-related businesses, then take preemptive actions for necessary human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In trading settlements, for example, Korea should call for China to designate a clearing bank that will clea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yuan positions. Accordingly, the clearing bank, through a branch in China, needs to supply money to cove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yuan positions. As for financing,

Korea has to attract more yuan deposits. Issuing yuan-denominated K-RMB bonds and being an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RQFII) will help Korea accommodate more yuan. Furthermore, a yuan asset management market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more yuan-denominated financial products are traded in Korea. Also necessary is raising Koreans' awareness of an offshore yuan hub through internal efforts, e.g., organizing a task force team and host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Externally, Korea needs to establish a financial cooperation channel between Korea and China to communicate effectively and seek cooperation from China.

I. 서론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부문에서 G2로 부상하면서 2030년까지 제조강국, 무역대국, 금융강국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경제구조개혁을 지속해 오고 있음
 - 특히 금융강국이 되고자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는 상해를 위안화 특화 국제금융중심지로, 외부로는 홍콩을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며 중국 금융기관을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완전한 위안화 국제화는 자본자유화의 도입을 그 조건으로 하지만 중국경제의 여건상 상당 기간 이를 허용할 수 없어, 역외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을 받고 있음
 - 중국이 자본자유화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그에 따른 금융불안과 금융위기 촉발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임
 - 이에 맞춰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을 자국의 금융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임

2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 한국은 중국과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한 데 이어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본격 돌입하면서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의 토대를 마련함
 -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큰 데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매년 많은 중국 관광객이 유입되어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위안화 국제화를 금융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추진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 단계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위안화가 완전한 국제통화가 되기 위한 선결요건에 대해 조사하고, 위안화 국제화의 일환인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동향 및 각국의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II.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선결요건

1. 위안화 국제화 현황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달러화 약세에 따른 외환보유고 평가손실과 관리비용 문제를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국제거래에서 위안화 통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음
 - 200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공식화함

- 중국은 현재 3단계에 걸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 단계별로 1) 결제통화로서의 국제화 2) 투자통화로서의 국제화 3) 보유통화로서의 국제화를 추진함
 - 중국은 현재 무역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국제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통화로서의 기능강화에도 나서고 있음

가. 무역결제통화로 국제화 촉진 조치

- 위안화의 국제통용은 2003년 초부터 접경국가와의 소규모 국경무역에서 시작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당국은 본격적으로 위안화를 사용한 무역결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함

4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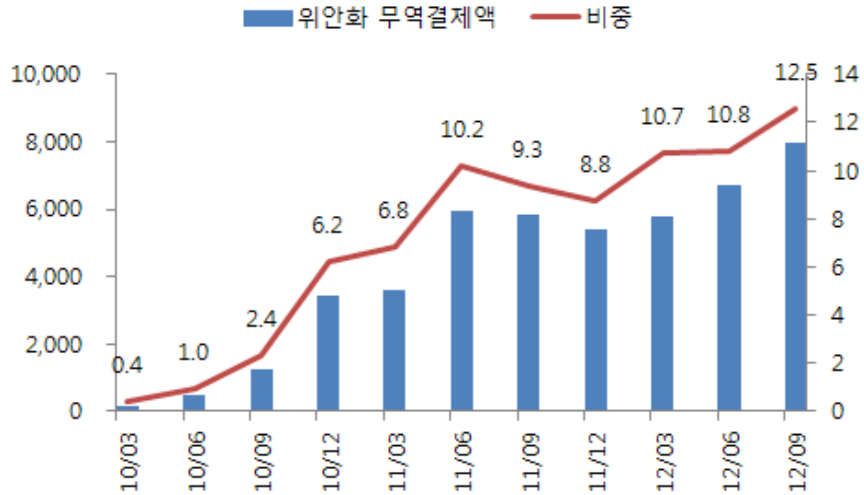
- 우선 2009년 7월 상해 등 5개 도시와 홍콩·마카오·ASEAN 10 개국간 위안화 무역결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데 이어 2010년 6월에는 시범지역을 북경 등 2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무역결제 대상 지역도 전세계로 확대하였으며, 2011년에는 위안화 해외무역 결제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함
- 종전에는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에 등록을 해야만 위안화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2010년 10월 1일부터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위안화 결제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으며 결제범위도 경상거래의 모든 항목으로 확대되었음

□ 중국은 무역결제통화의 국제화 추진을 통해 결제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중국의 전체 교역 중, 위안화 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위안화 결제액은 5,063.4억위안에서 2011년 2조 812억위안으로 4배 증가하였고, 중국 대외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2010년 1분기 0.4% 수준에서 2012년 3분기 12.5%로 급증함
- SWIFT(국제은행간 자금결제통신망)에 따르면 세계 결제통화 중 위안화 순위는 2010년 35위, 2011년 6월 21위, 2012년 1월 20위에서 2월 17위로 상승함
- 그러나 세계 결제통화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은 0.33% 수준으로 전 세계 무역비중(10% 내외) 감안 시 매우 작은 수준임

<그림 II-1> 중국 대외교역 중 위안화 결제 및 비중

(단위: 억위안, %)



자료: WIND

나. 투자통화로서 국제화 촉진 조치

- 현재 위안화로 무역결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 역외시장에서의 위안화 조달과 운용이 어렵다는 점임
 - 중국의 자본계정은 FDI를 제외하면 부분적으로만 개방되어 있어 무역상대방이 위안화를 취득하더라도 운용수단이 부족함

- 이에 중국은 홍콩을 중심으로 역외에서 위안화 표시 금융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무역계정을 통해 공급된 위안화의 활용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옴
 - 우선 중국당국은 2004년 1월 홍콩 은행들이 위안화 표시 개인예금, 송금, 외화 환전, 신용·직불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취급할

6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수 있도록 허용한데 이어 2007년부터는 중국 금융기관들의 홍콩 내 위안화 표시 채권인 딴셴본드의 발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함

- 또한 중국 은행들의 홍콩내 위안화 표시 채권·보험·증권 발행 허용 등의 투자상품 다양화를 위한 조치도 이루어짐
- 2010년 7월 19일 중국인민은행과 홍콩금융관리국간 '위안화청산 협정 개정안' 체결 이후 외국기업들은 역외에서 위안화를 자유롭게 매입, 대출, 송금할 수 있게 되었고 더 활동적이고 유동성이 강한 FX(Foreign Exchange), MM(Money Market) 투자시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홍콩내 위안화 펀드·보험 판매도 허용됨
- 또한 2010년 8월부터 일부 외국인투자자(off-shore bank)에게 국내 은행간 채권시장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저금리 예금에 한정되어 있던 홍콩의 위안화 금융시장에 고수익의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

□ 이에 따라 홍콩에서의 위안화 예금, 딴셴본드 발행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홍콩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

- 위안화 예금잔액은 2009년말 600억위안에서 2012년 9월 기준 5,457억위안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딴셴본드 발행액은 2010년 424억위안에서 2011년 1,514억위안으로 크게 증가함
- HSBC, 스탠다드 차타드 등 주요 은행 중심으로 외환거래(현물·선도), 스왑거래(통화스왑·금리스왑), CD거래 등이 개시됨으로써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있음

<표 II-1> 역외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현황

상품종류	주요내용
현물(Spot)	일평균 거래규모 5~6억 USD
선물(Forward)	CNY NDF, CNH DF 등 두종류 상품 공존
통화스왑(CCS)	일평균 거래규모 4억위안(2010.8), 만기 5년 이내
이자율스왑(IRS)	3개월물, 만기 10년 이내, 일평균 거래규모 2억위안
단기금융시장	참여기관 수 적고 거래규모 적음
양도성예금증서 채권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초상은행 등 발행 딤섬본드 발행증가, 일평균 유동성 2~5천만 위안
위안화 IPO	Hui Xin real estate investment

<표 II-2> 역외 위안화 예금 규모

(단위: 십억위안)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런던	대만
위안화 예금잔액	563	60	46	35	16

자료: Zhang Zhiming(2012)

다. 준비자산통화 국제화 촉진 조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은 위안화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위안화의 준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08년 12월 이후 15개 국가와 약 1.3조위안의 통화스왑을 체결함
 - 최근 통화스왑 체결 국가가 증가(2011년중 6개국)하고 있는 것은 우선 아시아지역을 위안화 블록으로 묶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국제화전략이라는 중국정부의 판단이 그 배경인 것으로 해석됨

<표 II-3> 중국의 위안화 통화스왑 체결현황

통화스왑 대상국	통화스왑 규모	협정체결 시기
말레이시아	800억위안	2009.02.08
벨라루스	200억위안	2009.03.11
인도네시아	1,000억위안	2009.03.23
아르헨티나	700억위안	2009.03.30
아이슬란드	35억위안	2010.06.10
싱가포르	1,500억위안	2010.07.24
뉴질랜드	250억위안	2011.04.19
우즈베키스탄	7억위안	2011.04.19
몽골	50억위안	2011.05.06
카자흐스탄	70억위안	2011.06.13
한국(확대)	3,600억위안	2011.10.26
홍콩(확대)	4,000억위안	2011.11.22
태국	700억위안	2011.12.22
파키스탄	100억위안	2011.12.23
아랍에미리트 연방	350억위안	2012.01.17

자료: Baidu

- 또한 중국은 IMF 국제준비자산인 SDR의 구성통화로 위안화를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1년 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중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SDR 통화바스켓에 위안화 추가를 지지한다고 발표함
 - 2011년 3월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위안화를 SDR 바스켓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

-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도 위안화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을 발표
 - Lamido Sanusi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전체 외환보유액 330억달러 중 약 5~10%를 위안화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2011년 9월 6일)

- 한편, 중국과 일본정부는 2011년 12월 25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엔화와 위안화의 직접 거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2년 6월부터 위안화와 엔화의 직접거래가 가능해짐

- 2012년 8월에는 대만과 '화폐청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무역거래 할 때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와 대만달러로 상대방의 재화나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게 됨

2. 선결요건

가. 가격 산정 및 결제기능을 위한 위안화 가치 유지

-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화폐가치가 안정되고 통화발행국의 정치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수들은 물가상승률과 물가변동성임
 - 만약 물가상승률과 변동성이 크다면 화폐의 대외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의 변동성도 커져 화폐를 국제통화로 사용할 때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게 됨
 - 또한 물가상승은 구매력을 떨어뜨려 화폐의 보유비용을 높이고, 그 결과 가치저장과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림
 - 그러므로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낮고 물가변동성 및 환율변동성이 적어야 함

10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 앞으로 위안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책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환율제도 역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해야 함
 - 중국은 복수통화바스켓제도(Multiple Currency Basket Peg System)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명목상 관리변동환율제이지만 변동보다는 관리에 큰 의미를 부여함
 - 변동환율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이 개혁해야 하는 과제 중의 첫 번째는 금리의 자유화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국유은행과 금리제도의 개혁임

- 자본시장의 개방과 환율제도 개혁은 모두 단기간 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다가 위안화의 안정성이 경제적·정치적으로 담보되어야 하고, 지역 내 국가들이 위안화를 사용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협력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의 안정성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역결제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임
 - 장기적으로 볼 때 위안화 환율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정부가 환율 변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중국외환거래센터의 기능을 확대시켜 위안화 대 외국환, 외국환 대 외국환 등의 태환이 가능한 시장으로 발전시켜 위안화 환율형성 메커니즘의 시장화를 촉진해 나갈 것임

나. 위안화의 자유태환 실현

- 통화의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가 통화를 수출할 수 있는 힘, 즉 자본수지의 적자를 통해 그 나라의 통화를 해외로 내보낼 필요가 있음
 - 이는 위안화의 자유로운 유통을 비롯한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수출능력이 없는 나라는 통화도 국제화될 수 없기 때문임

- 중국이 국제거래에서 위안화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외 금융시장 위주의 제한적인 개방에서 벗어나 역내 금융시장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선결조건임
 -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위안화의 자유태환은 국제통화로 부상하기 위한 선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
 - 위안화가 해외로 진출하려면 위안화의 자유태환이 절실하며 국내나 국외를 막론하고 위안화와 기축통화 사이의 자유태환은 위안화 국제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임

- 이를 의식하여 중국 금융당국도 현재 추진중인 홍콩 역외시장(off-shore market) 활성화와 병행하여 상해를 중심으로 역내시장(on-shore market)의 경쟁력 향상과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 홍콩은 역외금융센터로서 중국 국내 금융시장이 성숙되기 이전까지 정책의 test-bed로 육성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의

12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투자 및 자금조달을 점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최근 이러한 차원에서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의 투자한도 확대, Mini QFII 도입, 상해 국제판 개설과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제도 시행 등 중국 증권시장의 개방도를 높여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책을 검토 중임

- QFII 투자한도를 2012년 4월 300억달러에서 800억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함

- 위안화 국제화 속도는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기간 (2011-2015)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이며, 자본계정하의 위안화 태환 문제는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구체적인 시간과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국당국은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다. 해외 위안화의 중국 본토 역류

- 위안화의 국제 비축기능을 발휘시키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위안화 역류를 점차 허용해야 함

- 중국 국채시장을 대거 발전시켜 장래 위안화 자금 역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발달한 금융시장은 위안화의 국제화에 도움이 됨

- 중국 금융시장은 향후 위안화가 되돌아오는 주요 투자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해외 진출 추진과 함께 자본시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국내 국채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다른 국가(지역)들이 비축하는 위안화 자산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며 일반적인 경상계정과 자본계정 하의 거래를 만족시키는 것 외에 나머지 위안화 자산은 반드시 투자루트를 모색해 나설 것임
 - 중국의 은행간 채권시장을 이런 국가(지역)의 위안화 자산에 개방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위안화 국제화를 한층 확대하는데 도움이 됨
 - 이에 따라 중국이 해외로 흘러 들어간 위안화가 다시 안전하게 본토 금융시장으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작업도 조만간 진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확대되고, 무역결제 시 과도한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결제통화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위안화를 사용한 무역결제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시장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임
 - 향후 위안화를 사용한 무역결제의 확대는 달러화에 편중되어 있는 무역금융 부문에서 환리스크 문제를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4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 하지만,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결제에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경제에 확실한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결론을 내놓기가 어려움
 - 현 시점에서 위안화 결제로 인한 환전비용 절감효과는 수출대금으로 회수한 위안화를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등 제한된 부분에서만 환전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위안화 환율은 중국 정책 당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향후 위안화의 절상 폭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도 상존함
 - 따라서 한·중 무역 시 위안화 결제는 국내 기업들의 위안화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한국과 중국과의 위안화 무역결제는 위안화의 국제적 신인도 향상, 중국정부의 시범실시 정책 확대 여부, 한중 무역규모 증가 및 FTA체결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현재 한국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 한국은 국제통화체제의 변화와 아시아 역내 움직임에 충분히 고려하면서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III.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 필요성

1.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 필요성

-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란 중국 역외 지역에서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금융거래가 집중되는 위안화 관련 금융거래 및 금융서비스 집적지를 지칭함
 - 현재 위안화는 완전태환이 불가능한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위안화 역외 거래시장은 비약적으로 확대됨
 - 무역결제에 위한 위안화 수요와 더불어 위안화 자금조달 및 신용거래, 투자와 헤지가 모두 가능한 지역을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라고 할 수 있음

-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의 범위는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됨
 - 제1단계: 위안화 결제시스템 구비
 - 결제통화로서 위안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위안화 은행 계좌, 담보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함
 - 중국의 무역결제 시 위안화 사용 촉진 방안과 더불어 무역 대금거래 위주의 시장 형성이 가능함
 - 제2단계: 위안화 조달 시장 구축
 - 결제시스템이 완비된 후 위안화 수요자가 위안화를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의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위안화 예금 확보,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위안화 조달 통로 개설 등이 필요함

16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 제3단계: 위안화 금융상품 운용 시장 형성

-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양한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거래 및 부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장 구축함
- 위안화 거래에 따른 환헤지 수요 등도 이 단계에서는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심도 깊은 시장 구축이 필요함

□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은 자본시장 개방과 자유로운 환율 운용이 필요하나 중국경제의 여건상 상당 기간 이를 허용할 수 없어, 역외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은 본토로의 영향은 차단하면서 위안화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한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를 test-bed로 활용하고자 함

□ 향후 위안화 국제화를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거점지역에서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설립이 필요하며, 위안화 금융서비스 수요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해외국가들의 경우 무역결제, 보유외환 다변화, 외국인의 역외 위안화를 통한 중국 투자 확대(RQFII), 해외기업들의 중국내 증시 상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안화 수요가 증대됨

— 이러한 위안화 수요 증가와 함께 각국들은 자국 금융분야 성장동력 추가, 일자리 확대,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따라서 주요도시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경쟁은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경제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이 빨라지고 있으나, 중국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은 단기적 실현이 어려운 만큼 향후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의 기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2. 구축사례

- 그 동안 홍콩,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들은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홍콩은 제1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상황임

<표 III-1> 주요국들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추진 노력

국가	주요 내용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위안화 관련 업무 개시 이후, 위안화 무역결제, 덤섬본드 발행, 역외 위안화 시장(CNH) 형성 등이 활발히 진행 · 홍콩은 지리적, 정책적 이점으로 제1의 역외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보 · 광동성 선전시와 홍콩은 쌍방향 역외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련의 금융개혁 조치를 발표 · 치엔하이 소재 기업과 금융기관의 홍콩 내 위안화 채권발행 추진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2011년 9월 제4차 경제·금융대화에서 런던을 역외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합의 · HSBC 은행은 런던에서 첫 위안화 채권 발행 · 홍콩과 위안화 상품에 대한 청산, 결제, 유동성 공급 등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민간부문의 합동포럼 설립 · 유럽은 중국의 제2무역국으로 위안화 자금공급 확대 필요가 있음, 영국은 유럽의 관문 역할로 경쟁력 있음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관유, 고축통 前 총리 등이 홍콩에 이은 제2의 역외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추진을 천명 · 중국은 싱가포르의 위안화 결제를 허용 · 중국 금융당국과 BoC, ICBC 등 중국계 은행을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 진행 ·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은 2번째 외환시장으로 위안화 거래의 전략적 의미가 중요 · 은행들도 속속 위안화 예금업무를 시작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일본간 금융시장 협력'(中日加强合作發展金融市場, 2011.12.25)을 발표 · '중국·일본간 금융시장 협력'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중국 정부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자국의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물로 볼 수 있음 · 일본과 중국간 엔화-위안화 직접거래 지원조치 시행(2012.5.29)

가. 홍콩

- 홍콩은 현재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홍콩은 2004년 이후 위안화 관련 업무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제반시설을 구축함
 - 위안화 결제시스템을 실시간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2007년 6월)하고 위안화 무역결제(2009년 7월)를 추진
 - 위안화 무역대금 결제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도 위안화 업무를 제공하는 홍콩 은행들(이하 참여은행)은 예금, 환전, 송금, 신용카드, 수표, 채권 등 기본적인 소매금융 서비스를 제공
 - 2009년 7월 이후 무역금융과 같은 광범위한 위안화 업무 개시
 - 2010년 7월 중국이 위안화 거래 규제를 풀면서 홍콩은 위안화 국제화의 시험 무대로써의 역할을 수행

- 홍콩의 역외 위안화 업무는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있음
 - 위안화 예금업무의 급속한 확대
 - 2011년말 홍콩의 위안화 예금규모는 5,885억위안으로 2009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함
 -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규모 확대
 - 홍콩의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액은 2009년 12월 13.6억위안에서 2012년 9월 2,393억위안으로 증가하여 전체 위안화 역외 결제 규모의 70%를 차지함

- 2010년 12말 중국은행(홍콩),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 154개 은행들이 홍콩 위안화 업무의 결제플랫폼에 참여함

— 위안화 채권시장의 확대

- 2007년 6월 27일 국가개발은행은 처음으로 홍콩에서 50억위안의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이후 위안화 채권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 채권 발행주체 또한 중국정부 및 본토 은행에서 홍콩기업과 다국적기업 등으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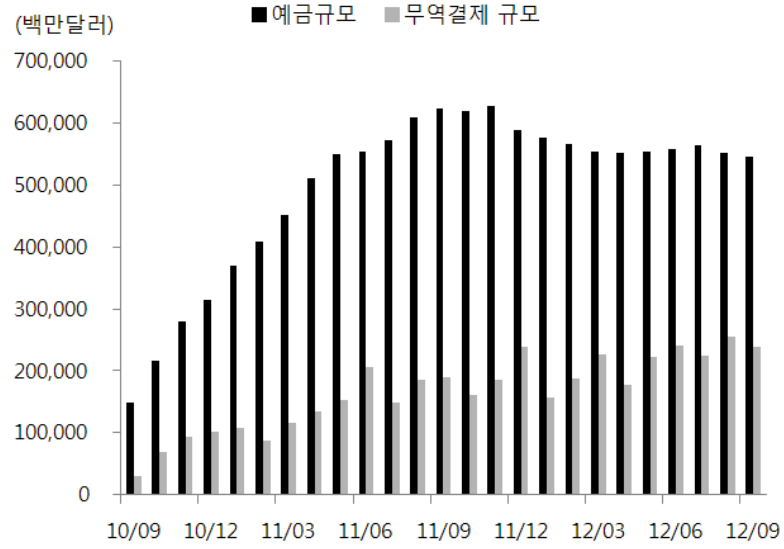
— 위안화 금융상품의 확대

- 현재 홍콩은행 위안화 신탁상품으로는 위안화 예금, 태환, 송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어음, 대출, 무역금융 등으로 다양함
- 채권시장에는 역내은행 채권, 국채, 홍콩 회사채, 다국적 회사채, 국제금융기관채권 등이 거래되고 있음
- 이밖에도 외환시장(현·선물, NDF), 파생상품 (스왑, ELN), 펀드(위안화표시 공모펀드), 보험(위안화 생명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 아울러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중국내 증권투자 분야에 투자하는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제도가 구축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Guo Shuqing(郭樹清) 위원장은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 개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700억 위안의 RQFII 한도를 2,700억위안으로 확대키로 한다고 언급함

<그림 III-1> 홍콩의 위안화 예금규모와 무역결제 규모



자료: CEIC

<표 III-2> 홍콩 위안화 관련 업무 발전과정

일시	내용
2003년 11월 9일	중국인민은행과 홍콩금융감독국은 북경에서 협력MOU를 체결하고 홍콩에서의 위안화 업무 개시를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중국은행(홍콩)이 청산은행으로 됨
2004년 2월 25일	홍콩은행은 홍콩주민을 대상으로 개인 위안화 예금, 태환과 송금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함
2005년 11월 1일	중국인민은행은 홍콩 위안화업무 확대와 개인 현금태환 상한을 발표함
2006년 3월 6일	새로운 위안화 결제시스템을 출시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홍콩 주민이 현지은행에서 위안화 어음계좌를 개설하여 광동성의 소비지출에 대해 지불할 수 있게 됨
2007년 1월 10일	국무원은 홍콩의 위안화업무가 본토로 확대되는 것을 승인하고 금융기관이 홍콩에서 위안화 금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함
2007년 7~9월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및 중국은행 등은 홍콩에서 100억위안에 달하는 담석채권을 발행함
2009년 6월 29일	중국인민은행과 홍콩금융감독국은 본토와 홍콩 해외무역 위안화 결제업무 MOU를 체결하고 홍콩 시범지역에서 위안화 예금 결제업무를 시작함
2010년 2월	홍콩은행은 본토에 유입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를 운용할 수 있으며 본토 비금융기관은 홍콩에서 담석채권 발행을 승인받음
2010년 7월 8일	재정부는 중앙정부가 28일 홍콩에서 60억위안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담석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함. 이는 재정부가 처음으로 홍콩에서 담석본드를 발행한 것임
2010년 7월 9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은행(홍콩)과 “홍콩은행 위안화 업무의 청산협정” 수정안을 체결하고 홍콩금융감독국과 위안화무역결제 확대에 대한 보충협력MOU를 체결함
2011년 10월	RQFII 중국 본토 투자를 허락함
2012년 11월	RQFII 한도를 700억위안에서 2,700억위안으로 확대기로 함

- 이러한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서의 홍콩의 발전은 본토와의 긴밀한 관계에 기인함
 - 체제면에서 장점: ‘일국양제’ 원칙에 따른 홍콩에 대한 독립적 관할체제는 본토와 홍콩간의 협력체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위안화 역외이용에 따른 각종 리스크에 대해 관리가 가능함
 - 선행자 장점: 홍콩은 2004년부터 위안화업무를 시작하여 위안화상품이 발전하기 시작함
 - 규모의 장점: 2012년 9월 홍콩 위안화 결제규모는 2,393억위안으로 전체 역외 위안화 결제액의 약 70% 이상을 차지함
 - 수요관련 장점: 본토에서 홍콩을 통한 무역은 12.8%를 차지하며 4,000억달러에 근접하고 있으며, 다수의 본토기업이 홍콩시장에 상장하고 있어 향후 본토기업의 홍콩 현재 위안화 채권발행 등 가능성 높음

- 최근에는 주변도시의 견제와 통화 투자 동향 변화로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서의 독보적 위치가 위협받고 있음
 - 최근 중국은 상해를 금융도시로 육성해 2015년까지 위안화 거래의 중심지로 적극 양성하고 글로벌 거래를 위한 대형 증권거래소도 설치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외국자본의 중국 본토 직접유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아울러 투자심리 변화로 위안화의 유출 현상이 심해져 홍콩 내 위안화 보유량마저 감소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감지됨
 - 또한 싱가포르, 런던, UAE, 대만 등 지역에서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위안화 역외 비즈니스의 독보적 위치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나.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홍콩과의 차별화로 위안화 투자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 일일 외환거래량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싱가포르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활발한 외환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위안화 예금 유치 및 자산관리상품 출시 등 위안화 관련 업무를 개시하였음
- 국제무역에서 홍콩 이외에 아세안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싱가포르에서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건설의 중요성을 강화함
 - 싱가포르와 중국 본토와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으로 전체 아세안과의 무역규모로 볼 때 2,900억달러를 넘어서 홍콩보다 훨씬 많음
 - 또한 향후 아세안과의 무역규모도 더욱 확대 가능함
- 이 외에 싱가포르만이 갖는 간소화된 금융거래방식과 이슬람, 인도와의 높은 연계성은 홍콩과 차별성을 갖는 장점으로 향후 홍콩은 싱가포르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추진현황

- 싱가포르는 2011년 초부터 역외 위안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들어 역외 위안화 자산관리상품이 대거 출시됨
- 자국 은행 한 곳에 대해 (중국은행과 공상은행 등 두 곳이 싱가포르에서 위안화 결제를 담당할 은행 후보로 꼽히고 있음) 싱가포르에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힘

- 앞으로 싱가포르가 홍콩에 이어 중국 위안화 거래를 위한 역외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는 위안화 결제를 위한 제반 준비에 한창이며 중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규모의 위안화 결제를 허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다. 런던

- 중국은 국무원 부총리 Wang Qishan은 런던에서 제4차 중·영 경제 재금대화에 참석하여 런던을 홍콩 이외의 제2의 역외 금융중심지로 설립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
 - 이는 위안화의 궁극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제금융중심지에서의 위안화 결제, 거래, 추진거점 설립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함

- 런던은 이러한 역외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서의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런던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홍콩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제도, 문화 등 면에서 높은 업무 연계성을 보유함
 - 런던은 2011년말 기준, 위안화예금 1,090억위안이며, 이 중 고객예금(개인과 기업) 350억위안(홍콩은 5,890억위안), 은행간예금 740억 위안 등임
 - 런던은 이미 기본적인 위안화 은행 소매업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계좌이체 및 지불, 예금, 저축계좌 등을 제공함

26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와 한국의 대응

- 기업금융업무도 비교적 발달하여, 기업계좌, 외환서비스, 정기예금, 현금관리, 무역자금조달, 신용지불 등 서비스 제공함
- 현물, 선물, 스왑 및 옵션 등 외화관련 상품 제공하고 있으며, 런던의 역외위안화 현물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26%에 달함(홍콩은 56%)

□ 영국은 런던을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진행함

- City of London은 위안화 사업계획팀 구성함
 - 중국은행, BarclaysBank, 도이치은행,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영국재무부, 영란은행 및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 등이 회원으로 가입함
-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LME)는 위안화로 금속계약결제를 진행할 계획임
 - 알루미늄, 아연 등 각종 금속의 글로벌 표준인 LME의 계약은 달러화로 표시되나 회사에 유로화, 엔화, 파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금속시장의 주체로 성장함에 따라 LME선물거래소에서의 위안화 거래의 비중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중화권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2012년 4월 18일 HSBC는 런던에서 위안화 우선 무담보채권 발행함

IV. 한국의 역외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전략

1.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가. 기회요인

- 기회측면에서 볼 때, 국내 금융기관의 위안화 관련 업무 역량을 높여 위안화 투자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우선 국내 금융기관이 위안화 무역결제, 위안화 표시 예금·채권·파생상품 등 금융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위안화 비즈니스 역량을 확충할 수 있음
 - 중국경제와 위안화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업무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위안화 국제화 진전으로 위안화 무역결제가 증가하고 역내 외 위안화 시장이 확대될수록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
 - 2010년 이후 위안화 무역결제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까지 2조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여 세계 3대 무역결제 통화가 될 전망이다
 - 중국 자본시장이 본격 개방되기에 앞서 역내 외 다양한 위안화 투자 수요를 국내 금융기관이 선점하고,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중국 본토와 경쟁할 수 있는 입지를 구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음

- 한국은 결제통화의 다변화를 통해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야기되는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음
 - 한국경제는 무역결제나 자본거래 등에서 달러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무역결제 시 달러화 비중이 수출의 경우 85.8%이고 수입은 82.6%(2011년 기준)로 매우 높음
 - 자본거래 시 외화표시 대외채무에서 달러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대외 자본거래도 달러화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의 부정적 영향이 한국 국내에서 더욱 증폭되는 문제점이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달러화 유출이 가속화되어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경험함

- 위안화 무역결제가 확대되고 한국 국내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對중국 교역기업은 환전 등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한국 국내 본사와 중국 내 자회사간 위안화로 거래 시 이익 증대가 예상되는데, 본사와 자회사간 무역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자회사의 환전비용이 절감됨으로써 기업 전체의 이익이 증가함
 - 국내에서 본사가 위안화 채권 발행 후 중국 내 자회사로 송금함으로써 자회사는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함
 - 중국 내 기업과 수출입 결제 수요를 모두 가진 국내기업은 수취한 위안화로 지급할 수 있어 환위험을 헷지하고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중국측 거래 상대방에 환 위험 축소와 업무 간소화 등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바이어 관리 측면에서의 효과가 있음

나. 위협요인

- 물론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추진에 따른 위협요인도 있는 법이며, 특히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정책당국의 인위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국내 수출입기업이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려면 달러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포지션도 관리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국내 금융기관의 위안화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중국·홍콩 등의 시장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위안화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규정이나 관행 개선도 필요함

- 또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제 1의 교역국으로 중국이 부상한 상황에서 한국 국내 수출입기업의 수익성이 위안화 가치의 변동에 영향 받을 수 있음

2. 기본방향

가.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한국의 경쟁력

- 위안화 공급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무역 규모가 크고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위안화 결제 확대 시 위안화를 축적하기에 유리함
 - 한·중 무역규모는 2008년 144.6억달러 → 2009년 324.6억달러 → 2010년 452.6억달러 → 2011년 477.5억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위안화 유동성 공급측면에서 중국과 통화스왑(64조원/3,600억위안) 체결하며 역외 위안화 시장 조성 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함
 -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 통화스왑 규모는 홍콩에 이어 제2위임
 - 양국간 통화스왑은 양국간 교역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 위안화 시장수요측면에서 위치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물적·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형성함
 - 중국당국의 해외 금융투자 규제가 풀리면 한국시장에 대한 중국 투자 수요가 증가될 것임
 - 2011년 1월에는 기업과 은행들의 위안화 해외투자 허용, 올해에는 광둥성 선전시를 시범도시로 개인의 위안화의 해외송금의 제한적 실시를 검토함

- 한국은 정보 및 금융 등 측면에서 교두보 역할 가능함
 - 한국 금융시장을 통해 중국 리스크를 헤지하려고 하는 투자수요가 존재함
 - 한국지수선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일부는 중국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수요임

- 한국의 위안화 업무 현황
 - 국내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2011년 9.5억달러로 전년 대비 3배 가량급증함
 - 대중 수출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은 2010년 0.2%에서 2012년 상반기 0.7%로 0.5%p 증가함
 - 2012년 1~7월, 한국기업들의 덤섬본드 발행규모는 지난해 실적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룸
 - 한국기업: 30.8억위안(11년 13.5억위안)
 - 전체: 1,189.6억위안(11년 1,514억위안)

<표 V-1> 한국의 덤섬본드 발행현황

(단위: 억위안, 개, 년)

	금액 (억위안)		발행기관 (개)	평균금리	평균 만기(년)
	전체	우리기업			
2011년	151,412	1,351	3	2.3	1.7
2012년 1~7월	118,963	3,084	4	3.2	1.5

자료: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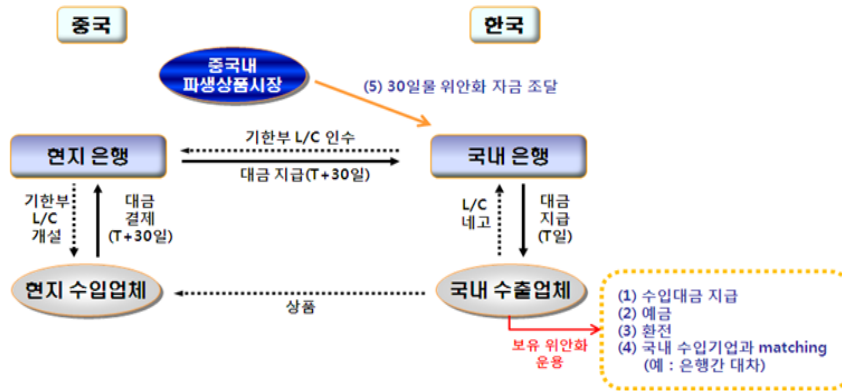
- 한편, 현재 국내 외환관리법상 위안화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으며, 역외 위안화 대차 등 거래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도 없음

나. 기본방향

□ 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

- 위안화 무역결제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국내기업들은 국내은행을 통해 가능함
 - 다만, 위안화 포지션 관리, B/S상 위안화 자산·부채 booking 등을 위한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역외 위안화 청산은행(clearing bank)으로 지정된 국내은행이 없어, 역외 위안화(CNH) 시장 조성이 곤란함
 - 홍콩의 경우, 중국은행(Bank of China) 홍콩법인이 청산은행으로서 타 은행들이 위안화 업무 취급 시 발생한 포지션을 스퀘어하기 위한 위안화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
 - 단, 위안화 무역결제와 개인 위안화 거래 관련 포지션만 BoC 홍콩을 통해 스퀘어할 수 있고, 기타 거래 시 환리스크는 은행 자체적으로 부담함

<그림 V-1> 위안화 결제 시스템



- 보유 위안화의 투자 기회를 마련하여 위안화 투자시장을 형성해야 함
 -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덤섬본드)은 홍콩에서만 발행되며, 한국을 비롯한 그 밖의 나라에서는 발행 불가하며, 한국에서의 위안화 채권발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에서 외화표시 채권발행은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 후 가능함
 - 중국측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한국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려면 중국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임
 -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 본토 주식·채권에 투자(RQFII) 하는 것은 현재 홍콩에서만 허용되며, 한국도 RQFII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중국 금융기관의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허용된 금액만큼 본토의 주식·채권에 투자함(RQFII)
 -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거래를 확대시킴
 - 국내에서는 은행 예금 이외에 투자 또는 헤지 목적으로 거래할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이 없음

- 홍콩의 경우, 2010년 7월 홍콩 내 위안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다양한 위안화표시 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

3. 정책 추진 방안

-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으로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향후 중국의 경제위상 강화와 위안화 비즈니스의 잠재성을 미리 인식하고, 관련 업무를 위한 인력, 인프라 등을 선제적으로 갖추고 준비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 무역결제에서 중국측에 국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청산(clearing) 기능을 수행할 은행을 지정함(중국계 은행 또는 국내은행)
 - 이에 따라 청산은행은 중국 본토 내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포지션 커버를 위한 자금을 공급함
- 자금조달측면에서 위안화 예금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은행들이 무역결제 자금에 한하여 중국 내 자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적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높은 예금금리 제공함
 - 국내에서 위안화 계좌간 이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안화 예금의 유인을 확대함

- 위안화 표시 채권(K-RMB 본드) 발행과 RQFII 등의 한국으로의 적용을 확대시켜 위안화 투자시장을 조성해야 함
 - 중국측에 중국 국책기관이 한국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시범 발행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홍콩에만 시행되는 RQFII를 한국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함

-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거래를 확대시켜 운용시장을 개설해야 함
 - 국내 금융기관들이 위안화 표시 보험,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중국측과 협의함
 - 예컨대 원-위안 선물시장 개설

- 대내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하고, 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함
 - 기획단은 정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함
 -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유도함
 - 홍콩은 첸 카이칭 재경·국고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 의지를 강조함

□ 대외적으로 對中 금융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우리측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함

- 한·중·일 국제국장회의,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정위크숍(차관급) 등 고위급 회의에서 추진의사를 표명함
- 한중 FTA 금융분야 협상 시 의제로 제기하는 방안 검토함
- 재정부·한국은행(한국) - 재무부·인민은행(중국)간 구축되어 있는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함
- ‘한·중 금융시장발전 공동 워킹그룹’을 구축함

V.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부문에서 G2로 부상하면서 2030년까지 제조강국, 무역대국, 금융강국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해 오고 있음
 - 특히 금융강국이 되고자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는 상해를 위안화 특화 국제금융중심지로, 외부로는 홍콩을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며 중국 금융기관을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3단계에 걸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 단계별로 1) 결제통화로서의 국제화 2) 투자통화로서의 국제화 3) 보유통화로서의 국제화를 추진함
 - 중국은 현재 무역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국제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통화로서의 기능강화에도 나서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완전한 위안화 국제화는 자본자유화의 도입을 그 조건으로 하지만 중국경제의 여건상 상당 기간 이를 허용할 수 없어, 역외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을 반기고 있음
 - 중국이 자본자유화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그에 따른 금융불안과 금융위기 촉발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임

- 이에 맞춰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을 자국의 금융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임

□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시장 구축 경쟁력을 분석해볼 때 한국은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 될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우선 중국과 무역 규모가 크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위안화 결제 확대 시 위안화를 축적하기에 유리함
- 또한 중국과 통화스왑 체결로 유동성 공급 장치 마련도 가능함
- 위치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

□ 비록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서의 인프라는 홍콩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모든 인프라를 일시에 완비할 수는 없으며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당국의 협조 하에 순차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그 동안 한국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세계 각국이 너도나도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가 되려고 질주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양국 간 밀접한 교역, 상호투자 증가, 국내은행들의 국제업무 확대 등을 고려해 위안화 관련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한국은 최근 중국과 FTA협상에 돌입함으로써 위안화 허브 구축에 다소 유리함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안남기, 김윤선, 2012, 최근 주요국들의 중국 “위안화 허브” 경쟁, 국제 금융센터 『Issue Briefing』 .

안유화, 2012,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연구원 『자본 시장 Weekly』 2012-30호.

임지현, 2012, 홍콩, 흔들리는 위안화 허브의 위상, KOTRA 『경제/산업 동향』 .

최필수, 2012, 최근 위안화 무역결제 감소의 배경과 전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현안자료』 .

Zhang Zhiming, 2012, 『위안화 금융허브의 경제효과』 , HSBC.

<해외문헌>

Kwok, D., Qu, H., 2011, Offshore RMB: What's next?, Global Research, HSBC.

Rossi, V., Jackson, W., 2011, Hong Kong's Role in Building the Offshore Renminbi Market, Chatham House.

Vaness, R., William, J., 2011, Hong Kong's Role in Building the Offshore Renminbi Market, International Economics Programme Paper, Chatham House.

張麗平, 2012, 我國在國際貨幣體系中的定位与作用, 國務院發展研究中心對外經濟研究部.

<웹사이트>

Baidu	www.baidu.com
HKMA	www.hkma.gov.hk
The People's Bank of China	www.pbc.gov.cn
WIND	www.wind.com.cn